

NEWS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무안·광주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

내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6·3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는 6·3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여서 내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중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민주 중앙선대위'서 계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은 선대위 산하 산업위aggi지역살리기위원회와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분부장을 겸임한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대위 산하 K-통합사회위원회와 총괄선거대책본부 총무본부 부분부장을 맡았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과 원내대책본부 부분부장을 겸임한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갑)은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상황부실장을 맡았고, 선대위 산하 교육위원회 직을 함께 수행한다.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각각 맡았다.

조계원 의원(여수시)은 선대위 산하 체육위원회로,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분부장으로 각각 된다.

권항업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여성본부 부분부장을,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총괄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 부분부장 각각 수행한다. 임선숙 전 최고위원은 후보직속기구인 배우자실 실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장애인본부장에 임명됐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선대위 산하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을 맡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지원 의원과 함께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에 임명됐다.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경량 철골 구조 모두 교체...하반기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무안공항 재개항 미정

12·29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여수 등 공항에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

조류 충돌에 따른 참사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조류탐지레이더가 최초로 운영되고,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도 시범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일부 국제 노선에서 운항

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도 배분되지 않는다.

무안공항은 안전성 강화 조치를 선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영 재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한다. 현재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은 총 6곳으로,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중단안전구역 확보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중단안전구역 늘리고, 원주·여수 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조류 충돌의 재발 방지도 나선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

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 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한다.

이에 앞서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간 경유 공항 중심으로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공항 변경 3~8km인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은 13k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원의 추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대책은 항공사의 안전 경영과 투자, 정비 역량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 공항에는 항공사별 현지 정비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높인다. 객실 승무원의 호칭은 '객실 안전 승무원'(가칭)으로 바꾸고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이날 대책에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항이 중단된 무안공항의 정상화를 위한 재개항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무안공항은 안전성 강화 조치를 선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영 재개 시기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 광주 1.94%·전남 1.42% 상승

최고가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순천시 연향동 상업지

광주시와 전남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1.94%,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고지가는 광주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전남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각각 조사됐다.

광주시는 30일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기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980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4% 상승했다. 그다음으로 순천시 1.84%, 여수시 자치구별로는 북구(2.23%), 남구

(2.16%), 서구(2.09%), 광산구(1.72%), 동구(1.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m당 1227만원(전년 대비 137만원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m당 884원(전년 대비 7원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22개 시·군 모두 상승했으며, 신안군이 2.30%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다음으로 순천시 1.84%, 여수시

1.75% 순이었으며 곡성군은 0.52%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m당 432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력리 모지로 m당 168원이다.

이기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정부24(https://www.gov.kr/)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기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방직공장터 개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대우건설' 선정

4315세대 규모 대단지 '더현대 광주' 입점 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아파트 개발 사업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됐다.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이하 휴먼스PFV)는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광주 챔피언스 시티)의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시

공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휴먼스PFV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2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통보했다.

광주 챔피언스 시티는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8만㎡(9만평)를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거·업무·상업시설을 포함한 총 431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부지 내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2025년 10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원이, 김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국내 김산업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마린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인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김산업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 김산업진흥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 제품 수출액은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전남지역 김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김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연구지원,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는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바로결혼



CMO 이무송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호남대표 전지연